



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발행인: 혜암 편집주간: 원승 편집인: 황의수 인쇄인: 김규식

www.chongji.or.kr

시방삼세 나타나는 일체 모든 사실들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은 범인불의 당체로서 활동하는 설법이라, 密은 色を 理로하여 일체 세간 현상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 이니 체험이 곧 법문이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

(宗祖法說集中)

제22호 총기 30(2001)년 3월 1일 목요일 구독신청: (02)552-1081

12대 통리원장 혜암 취임

불단장엄, 밀교도량 건설, 복지시설 확충, 인재육성발굴 밝혀



지난 2월 15일 제12대 불교총지종 혜암 통리원장 취임식을 하였다. 특정 종령님과 전국스승님, 교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삼일 의례에 따라 종령 법어, 11대 총지사 통리원장 이임사와 12대 혜암통리원장 취임사 및 법장원장 이임사, 회향서원가를 마지막으로 이·취임식을 마쳤다.

이날 혜암 신임통리원장은 취임식에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종령님을 위시하여 여러 스승님의 기없는 수행정진력과 총지종의 모든 신도님들의 무진서원으로 오늘날 총지종이 한국불교계의 한 부분을 이루었으며 모든 선배제현들의 노고와 원력의 화신인 사부 대중에게 지심으로 감사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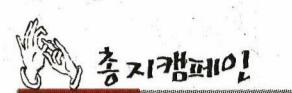
을 전하였다. 또한 취임의 변에서 첫째 스승님들의 법의와 위의를 갖추고 불단장엄 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둘째 중생들의 귀의처인 이 나라 최고의 밀교영험·진언정진 도량을 건설하여 교회를 활성화하고 중생들의 가슴속에 밀교진언의 묘리를 깨닫게 할 것이며, 셋째 스승과 신도님들이 노후를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불교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통밀교의 전령사인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데 최우선시 하겠다는 취임사를 하였다.

이날 각 부장 인사발령을 함께 하여 총무부장 박인사 주교원승, 사회부장 덕화사 주교 대원, 교정부장 총지사 주교 법등, 재무부장에 총무부장과 통리원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정혜서원당 주교 지성을 인사발령하여 제 12대 통리원을 이끌 진용이 갖추어졌다.

이날 함께한 법장원장 이임식에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총단

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위 분은 본회신하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원만히 운영하여 본회의 위상을 높였고, 불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해왔으며, 효강 법장원장은 두 번의 통리원장과 한번의 법장원장직을 맡으면서 남다른 애정과 총지종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자평하며, 교회방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져야 한다는 종조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교회 방편이 현대에 맞게 개발하려는 스승님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하였다.

한편 취임식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자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및 불교방송 김규칠사장이 참석하였으며 태고종, 관음종 등 각 종단과 새천년 민주당 연선회 회장 김기재, 부회장 장정언, 사무국장 이상곤 및 김근태 최고의원이 화환과 축전을 보내 축하하였다.



영원한 현재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앓고 살아간다. ‘사람이 만일 산다를 살더라도 죽지 않는 길을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죽지 않는 길을 보는 사람만 같지 못하다.’ (법구경)

이것은 아마도 양보다는 질적인 삶을 강조한 것이라. 현재의 이 삶을 중요시한 것이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무상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인 것이다.

오늘 또, 한 중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자살인터넷사이트를 보고 흥내…, 사망…, 저녁 뉴스를 보다 눈과 귀가 한 곳에 멈추어버렸다. 충격…, 웬만한 일에는 단련이 되어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 아닌가? 수십억대가 넘는 비자금에 금융사기, 공금횡령, 근친살해, 폭탄제조법 사이트, 원조국제… 등

왜 학생들은 자살을 하는가? 아직 미성숙한 어린학생들이 왜 자살을…, 위 보도내용은 한 중학생이 인터넷 검색도중 자살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그 사이트에 적혀있는 자살하는 방법대로 실행에 옮겨 독극물을 구입 음독했다는 것이다. 성적을 비판해서,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허무와 인생무상을 느끼며, 사회 정의와 계몽을 꿈꾸며 장렬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순간적인 유혹 즉 호기심 하나 자체할 줄 모르는 감각적 이성이 죽음을 부른 것이라 본다.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에,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정신적 공허, 롤모델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고 싶다.

이 시대 청소년들의 정서인 래이나 힙합을 듣고 따라 부르고 춤추는 이가 존경할 수 있는 롤모델이 몇이나 되는가? 과연 존재는 하는가? 누구를 롤모델로 할 것인가? 과거의 위인들 즉 세계위인전에 나온 인물들이 현재 청소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미국 역사이래 최저의 실업율과 물가안정, 강력한 미국을 구현했던 대통령 클린턴의 어린시절 롤모델은 바로 케네디 전 대통령이었다. 항상 케네디같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리라 꿈꾸었다 한다. 그럼 우리는, 나는 누구를 롤모델로 하고 있나?

누구나 위인전 한권 이상은 다 읽어 보았을 것이다. 위인전하면 가난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죽을 고생끝에 뜻을 이루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된다는 내용들로 도서관 인물코너에 꽂혀 진열되어 있는 책, 초등학생 필독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고, 어느 대기업 회장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읽는 것이 현실 아닌가.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누구나 손쉽게 읽도록 하여야 하리라 본다.

이 시점에 불자가 주축이 되어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으로 새로운 정신문화를 주도합시다.

기로스승 청암 종사 원적

총기 30년 2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세연을 다하시고 세수 74세로 열반



우리 종단 창종 당시부터 진언행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던 원로스승 청암 종사께서 총기 30년 2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세연을 다하시고 세수 74세로 열반에 드셨다.

청암 종사께서는 평생을 중생교화와 전법의 일선에서 진언에

염송의 공덕을 널리 펴셨던 분으로서 창종원년 경주 건화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부산경남교구장, 제 6대, 8대 통리원장을 지내셨으며 지난 총기 29년 12월 24일 교회의 일선에서 퇴임하였다.

청암 종사의 열반을 맞아 통



청암 종사 행장

성명: 이무형 (청암)
1928년 3월 10일 경주에서 출생
총기 1년 12월 13일
경주 건화사 주교 임명
총기 7년 10월 1일 대법사 승서
총기 12년 4월 1일 청정지 승서
총기 16년 2월 9일
부산경남교구장 임명
총기 18년 7월 27일
제6대 통리원장 선임
총기 21년 4월 21일
제8대 통리원장 선임
총기 29년 12월 14일 기로스승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나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마음의 정화 정진 통일되어야



지난 2월 19일 전국 각 사원에서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를 하였다. 특히 49일 불공 중 진호 국가불사를 하여 밖으로는 나라의 안녕과 밤전을 기원하고 안으로는 만다라를 관하고 혼탁한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개인의 정진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한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 이므로, 정부를 원망하는 마음

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희사하고 서원해야 한다고 한다. 이 불공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과 불교내부의 모순에 의해 법맥이 끝나고 말았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 회향한다.

혹시 지하철 구내를 지나다가 ‘풍경소리’라는 포스터에 실린 이런 제목의 글을 본 분이 있을 것이다. 포스터인 만큼 아주 짧게 줄이고 누르고 빼서 원고지 두 매 정도로 쓴 것인데, 원래 내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처음 집을 지을 때 뭘 모르고 석류를 심었다. 고향인 충청도에서 흔히 보면 걸 기억하고는 용인에서도 잘 자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용인은 석류가 열리지 않는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흙을 파서 물어주거나 온통 짚으로 싸주어야만 했다. 그래도 열매를 구경할 수가 전혀 없고, 대신 탑스런 꽃이 오뉴월 무렵 한달 내내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는 장관을 볼 수 있었다. 누가 석류나무더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도가 따뜻하지 못함을 느낀 이 석류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는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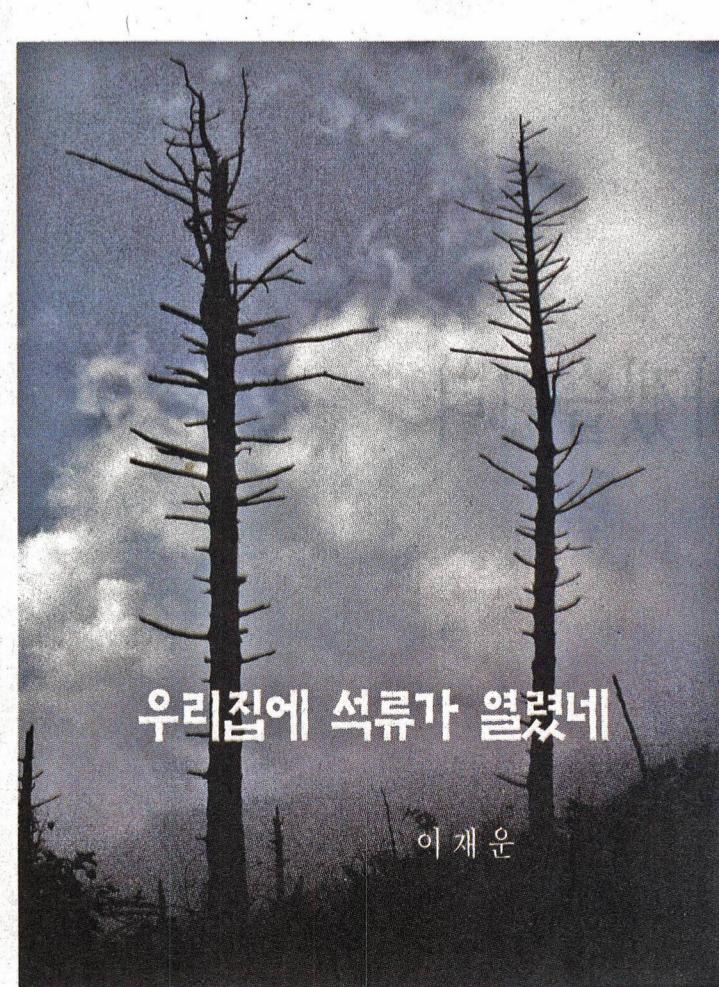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야 할 석류나무를 그렇지 않은 마당 한 겹에 심어놓고 보니, 이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키가 크지도 못하고 이파리나 가지가 살하게 자라지도 못했다. 석류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석류의 본래면목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집 석류나무에 영원히 석류가 열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 전 여름이 아주 뜨겁던 해, 석류가 세 개나 열렸다. 그것도 아주 탑스럽게 짹迸진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기적같은 일이었다. 네가 아주 바보는 아니었구나. 너는 온도만 충분하면 언제든지 석류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우리집 석류나무에 대한 선입견을 털어버리고,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던 찬란한 석류열매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나니 석류를 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제야 터득이 되었다.

석류가 열린 것은 알고 보면 간단한 이치였다. 그래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평균 온도가 상승하여 석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석류 하나도, 자연의 변화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당취(黨聚), ‘소설 금강경,’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벌을 사랑해야 한다,’ ‘불(佛)을 배워 사라나 얻어볼까’ 등의 불교 관련 소설과 저서가 있고, 주요소설로 ‘천년영웅 칭기즈칸’, ‘소설 토정비결’, ‘이재운삼국지’, ‘용왕화평지인’, ‘연일박지원’, ‘길부’, ‘소설 정역(正易)’ 등이 있다.



사설

다시 생각하는 3.1 운동

1910년 이후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독립투쟁은 각자에 의병(義兵)을 날고 널리 민족계몽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현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투옥하고, 일제의 결사(結社)와 언론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학생·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주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의 대회관은 긴장과 신념과 의지가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예약한 방에 모였다. 오후 3시 순번회의 제의로 한용운이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짐하는 간략한 인사에 이어 그의 선창으로 만세 3성을 고창 하였으며, 불과 15분만에 전격적으로 낭독식을 끝내고 통고한 대로 경찰이 오자 스스로 체포되어 갔다. 파고다공원 후문으로 나선 학생과 민중들은 창덕궁·안국동·광화문 앞에서 서대문을 경유, 프랑스영사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 한 뒤 다시 이화학당·정동·미국영사관·대학문 앞으로 해서 충무로를 거쳐 동대문 방향으로 가서 그 문 위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되었다.

3·1운동 이후 3개월 간의 전국 독립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집회 횟수는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 5961명, 체포된 인원수 4만 6948명이며 소각당한 교회당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 이때 서울의 10개교에서 여학생이 참가한 인원은 1,929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 운동이 어떤 지도력에 의하여 인도되었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계층별·남녀별·지역별·학력별·연령별 할 것 없이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시민혁명적 의식성장의 면에서 3·1운동은 곧 시민국가 성립운동의 성격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3·1운동이라 칭하며 삼일절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학생, 직장인 등은 그 날 하루는 업무를 놓고 쉰다. 삼일절의 의의나 역사적인 위치 등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사시험 때문에 기억할 뿐 학교를 졸업하면 오로지 공휴일로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삼일절 관련 현수막 몇 개 붙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는 다한 것처럼 하고 방송언론은 삼일절 특집으로 독립군들의 활약상이나오는, 대사·조치·신파 같은 오래 묵은 영화·편·방송으로 넘어가고 일간지에는 삼일절 행사에 높으신 분이 참석했다는 짧막한 보도기사 한 줄로서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아무리 역사는 과거이며 과거는 잊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들 중에서 과거의 유물이나 혹은 문화재 그리고 자연환경, 경제적인 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일절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이나 의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주고 물려주고자 한 생각과 사고 그 뜻을 받아 다시 우리들의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 또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총지인물



밀인사 주교 원승 총무부장
총기 19년 덕화사 주교
총기 22년 중앙종의회의원
총기 25년 밀인사 주교 및
통리원 재무부장
총기 29년 재단 이사
총기 30년 총무부장 임명

지난 2월 15일 새로이 임명된 신임 각 부서장에게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본다.
총기 30년! 혜암통리원장과 함께 제2창종의 정신으로 종단을 이끌 신임 부장님
들의 미스터플랜은...

(재무부장 지성정사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지 못했습니다)

▶ 종무행정 주무부서로 계획은?

우선 종무행정과 업무방향을 원칙과 객관성에 근거한 종단을 이끌 생각입니다. 이는 승단의회와 종단의 회합을 최우선하여 위로는 종령님과 원로스승님의 뜻에 수승하고 밑으로는 후배님들의 건강한 생각과 뜻을 모아 한마음 한뜻을 가진 종단을 생각입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스승과 교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가능하다 봅니다. 원칙과 객관성 속에는 질서와 예의 등 도덕적인 규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규집 내용이 현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관장부서로서 계획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법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장님 당시 법을 제정하였으므로 현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의 문제는 혼자만의 뜻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종무부에서 안을 만들지만은 원의회, 중앙종의회, 승단총회의 결수율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부분대로, 좀 시일이 걸려도 무방한 제도는 많은 시간을 통해 위로는 종령님을 위시한 원로스승님들의 뜻과 여러 스승님 및 종단전체의 뜻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 교정부의 계획은?

법규집을 보면 교정부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부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초발심의 자세로 방일하고 안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교정부가 무슨 무슨 일을 한다고 약속하기보다는 교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과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처처교화 시시포교의 슬로건을 가지고 교리연구 교화 활성화 방안연구 사업과 포교와 군포교 등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장 스승과 부서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품을 내어서 전부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에 유명부실한 교정부의 위상을 유명유실한 부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로스승님들이 퇴임을 하였지만 스승님들의 풍부한 교화의 경험과 방법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할까 고민을 하고 있으며, 불교총지종의 소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대중들과 스승에게 회향할까합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법장원과 교정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절 방안은?

통리원 교정부는 법장원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교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였으면 교정부의 일을 법장원에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장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충분히 업무 분장이 될 것입니다.

법장원은 밀교와 불교의 역경사업과 법요의식의 연구 등 고유업무를 볼수 있도록 교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 종단의 대 사회적 홍보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2월 15일 갑작스럽게 사회부장에 임명이 되어 아직까지 얼떨떨합니다. 또 업무를 받자마자 49일 불공에 들어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부는 대사회적 활동을 통한 종단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회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불교 고유의 사상을 접목하여 중생의 고통에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국제적 불교의 연대를 만들자는 못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한 교류와 연대 사업을 할것이며 더나아가 종단의 독자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져볼 생각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및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여러 불교계 협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불교발전에 본 종단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속에 독특한 밀교적 요소를 개발하여 대중과 친근한 종단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퇴임스승에게 듣는다



창종 30년 제 2의 도약을 위해서

교화의 방법이 시대에 맞는

방법과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개발하는 스승님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원생활 15년 동안 5대, 8대

통리원장과 법장원장을 수행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과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던 효강 정사님의 퇴임 일정이다.

- 아직 건강하신데 좀더 종단을 위해 일을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된다. 후진을 양성하는 뜻에서 선배는 물려나고 자꾸 점령적이고 활동적인 후배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종단이 살아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선배가 물려간 자리가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편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와서 허전하고 불편한 것을 메울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 혜진에 계실 때 종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는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요?

날마다 좋은 날이었다. 진언과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흐지지나가 버렸다. 과거에 종단은 내적발전에 중심이 돼 밖으로 종단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승님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이 일체되어 한국불교종단에서 불교총지종이 5대 종단으로 우뚝섰다.

또한 청소년 포교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부처님의 동제대비정신을 실천, 소비자보호운동,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도제 양성을 위해 법장원을 활성화하여 밀교개론서와 만나라 도정원고, 종보발간, 불교총전, 종조법설집 개편 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도 종지종단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나 불교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남는다.

-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찌 사람이나 살아가며 일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없겠나. 아쉬움이 없으면 부처께?

법장원에서 추진중인 일들이 많다. 그 일들을 완성하지 못한 점들이 아쉽다. 또한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각자의 남아 있는 일들이 있어 그 일을 마치다 보니 늦어진 것 같다.

앞으로 하나님께 뜰을 둉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승단 내부에는 내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외적인 일을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모두 종단의 발전을 위한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종단이 변화의 속도에 처하면 그만큼 세상과 멀어진다는 생각을 스승과 교도들은 가져야 한다.

- 신임 통리원장과 후배에게 한말씀?

신임 통리원장은 열의와 종단에 대한 발전상을 가지고 계신 똑똑한 분이다. 사원의 장암문제, 건축양식, 법의개발, 의식과 의례와 교화의 내용을 현대화하고 개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 종단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움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도제 양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한다.

- 앞으로 주석하실 곳은?

나의 조상이 계신 곳 밀양 일상사다. 또 나는 밀양 토박이고 밀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일상사에서 중생교화도 하고 진언 행자로서 수행을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 12대 불교총지종 혜암 종사 통리원장 임명

총기 30년! 제2의 창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에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통리원장 혜암
총무부장 원승
재무부장 지성
사회부장 대원
교정부장 법등

총·지·기·획

21세기는 인터넷 포교 시대

과거에 1년의 시간이 걸려 이룩한 결과물(지적이든 물질적이든)이

현대에는 1달이면 이룩되고 있으며, 과거의 10년은 현대의 1년의 개념과 비슷해지고 있다.

현대를 흔히 디지털 시대라 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연속파형의 형태로 표현하는 아날로그 시대였다. 이제는 문자나 소리 심지어 동화상까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세계 어느곳에서나 자료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한마디로 초고속인터넷시대이다. 2000년 현재 세계인구중에 3억명 이상이 인터넷을 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산업은 초고속, 대용량,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루가 달라지게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륙간의 환자치료가 가능해지고, 사이버대학, 전자상거래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것들은 모두 인터넷상으로 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 우리사회에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제조업중심의 사회가 정보산업중심사회로 바뀌지는 산업구조 전반에 대자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네이션이라고 일컫는 깊은이들은 빠르게 디지털시대에 적응을 하고있는 반면 기성세대는 디지털문화의 변화를 어색해하며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향수에만 젖어 있는 실정이다.

타종단 종교의 인터넷 포교활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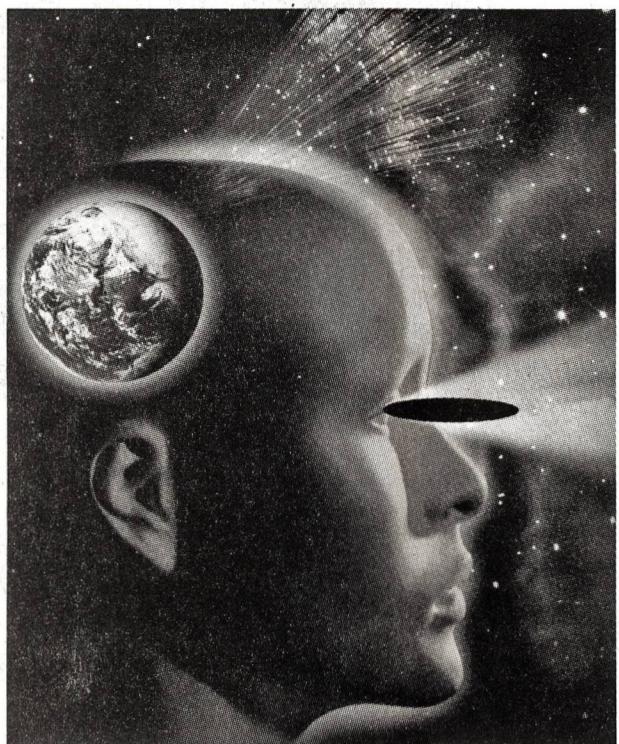
조계종은 불교종합정보망을 개통하여 휴대폰에 불교정보제공 서비스와 휴대폰을 통한 사찰 및 불교정보, 불교상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실 전산팀이 운영되어 종무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소속 모든 사찰에 보급하여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전산화, 각종 서류양식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어 불교계에서는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마음선원, 능인선원들은 인터넷 영상포교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태고종도 종단 정식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종무행정 전산화에 돌입하고 있다. 종단의 스님들과 교임의 신상을 물론 사찰과 단체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한눈에 알수 있게 종단 관련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 통신 및 영상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천태종도 본말사간 정보인프라망을 구축, 각종 포교자료를 사이버상에 제공하고 특히 사이버 법당 불교교리 신행상담등의 포맷으로 이메일로 상담을 벌이고 있다.

진각종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종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종단 산하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밀교자료와 출판물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왕성한 활



인터넷은 쓰레기장이라고 하지만 또한 보물곳간이기도 하다.

정보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눈 먼 중생들에게 문득,

부처님의 진리와 모습과 움직임이 원음과 더불어

컴퓨터속에서 걸어나온다면 그 또한 장관이 아니겠는가.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사업이 대환희의 보리심을

자극하는 크나큰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

동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정보센터 김봉준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상 불교사이트는 400여개가 있으나 이중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이트는 전체에 30%에도 못미친다. 타종교의 인터넷을 통한 선교사업은 가히 놀랄만 하다. 비슷한 예로 인터넷 사이트상 선교하고 이용하는 숫자를 정확한 데이터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또한 시장성에 있어서 기독교 인터

넷 시장은 일반 인터넷시장에 밀리지 않을 만큼 수요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

3년전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불교 포교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연구' 중 전 세계의 주요 종교별 인터넷 웹사이트 활용현황을 보면 기독교(개신교+천주교) 72.6%, 유대교 8.3% 불교 2.9%, 이슬람교 2.3%순으로 기독교의 인터넷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 국내의 경우에도 개신교 85.6%, 천주교 6.5%, 불교 6.1%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3년전의 자료를 근거로 현재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불교 인터넷을 운용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평이다.

본 종단도 타 종단과 비슷하게 종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통밀교의 여러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며 현재 27,000여명이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포교의 주무부서가 없어 컨텐츠개발과 정기적인 업데이트, 사이버 상담, 동영상등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종단의 스승의 일부분이 사이버 포교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구청을 위시한 지방사원을 보면 디지털시대에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자우편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우편배달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은 종단 책임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니 중앙행정부서인 통리원과 지방 사원과의 일상적인 업무전산화와 행정전산화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아니 패시밀리의 수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경험에 있어서 깊은 세대보다 더 많을지 몰라도 21세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에 대한 이해와 섭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구체화해야 한다. 과거에 1년의 시간이 걸려 이룩한 결과물(지적이든 물질적이든)이 현대에는 1달이면 이룩되고 있으며, 과거에 10년은 현대에 1년의 개념과 비슷해지고 있다. 인터넷은 쓰레기장이라고 하지만 또한 보물곳간이기도 하다. 정보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눈 먼 중생들에게 문득, 부처님의 진리와 모습과 움직임이 원음과 더불어 컴퓨터속에서 걸어나온다면 그 또한 장관이 아니겠는가.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사업이 대환희의 보리심을 자극하는 크나큰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뒤지지 말고 제발 눈을 크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자.

단순한 그림 속에 담긴 큰 이야기

이기선

불교란 무엇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때때로 그 대답은 오히려 명쾌할 수도 있다. 마치 눈먼이가 코끼리에 대해 말할 때처럼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을 더듬고는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인 양 말하는 것과 같아. 곰곰 생각해보면 눈먼이는 거짓말은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눈에 장애가 있어 코끼리의 본모습을 다 말할 수 없었을 뿐이지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눈 멀쩡하게 가진 자들이 눈에 보인대로 말한 것도 정작 코끼리의 참모습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인 것을 말한 것이고, 때로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 차리리 눈먼이가 말한 부분은 그가 느낀 코끼리에 대한 정직한 느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글쓴이의 갖는 고변일까.

그래서 불가(佛家)에서 입만 열면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매끄럽고 귀에 듣기 좋은 술한 말보다는 '할'처럼 뜻없는 웨침이 때때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잡이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불교 속에 녹아 있는 풍요로운 상징의 세계를 통해 느끼고 다가가는 것도 때로는 지름길 수도 있다. 그 상징의 바다 가운데 한 움큼의 물을 손바닥으로 떠올린다면 글쓴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리밀도를 끄고 싶다.

십자리밀정진도 혹은 십자리밀도는 십자리밀의 가르침을 상징적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리밀은 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하듯이 보살이 실천수행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을 뜻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수행목으로서 육자리밀과 보시·지계·인욕·정

진·선정·지혜라는 여섯 가지 수행덕목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 방편·원·력·지라는 4가지 덕목을 더한 것이 십자리밀이다.

이러한 십자리밀을 도설화한 십자리밀도는 다음과 같다.

1. 동근달(圓月)-보시(布施)

큰 동그라미를 그려 등 균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보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를 하는데 있어 보시하는 이, 보시받는

는 이, 보시하는 물건이 마음에 조금도 걸림없이 베푸는 청정함을 어두운 밤에 온누리를 두루 밝히지만 조금도 이즈러짐이 없는 보름달에 비유한 것이다.

2. 반달(半月)-지계(持戒)

반달로써 지계를 나타낸 것은 그릇되고 악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쌓아감이 미치 밤하늘에서 초승달이 솟아나서

어둠을 물아내며 반달이 되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3. 신날(鞋經)-인욕(忍辱)

신날은 인욕(忍辱)을 나타낸다. 바깥에서 오는 갖은 욕됨을 참고 안에 담긴 법성(法性)을 밝혀 나가는 것이 마치 신날

이 진땀, 마른땀, 자갈땀 등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 땀을 보호하여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인욕 또한 모든 장애를 참고 견디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4. 가위(剪刀)-정진(精進)

가위는 물건을 자르는 데 앞으로 나아갈 뿐 물려섬이 없다. 이처럼 정진이란 가위처럼 곧게 나아갈 뿐 물려섬이 없

이 용맹정진해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5. 구름-선정(禪定)

선정을 구름으로 나타낸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 대지의 뜨거운 열을 덜어서 시원하게 힘을 비유한 것이다.

6. 금강저(金剛杵)-지혜(智慧)

금강저는 지혜를 나타낸다. 이는 미치 광신에

서 금줄기를 찾아 캐어 불에 녹여 진귀한 보배를 얻듯이 중생이 지난

번뇌의 줄기를 찾아 캐어내고 지혜의 불에 녹이고 단련하여 미침내 불성금보(佛性金寶)를 얻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금강저가 지난 굳세고 날카롭고 지혜로움(明)이 모두 갖추어져 깨달음에 나아가는 데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7. 좌우의 쌍우불(左右雙井)-방편(方便)

좌우로 나란히 그려진 한 쌍의 동그라미는 우물을 상징한다. 우물을 물은 목마른 중생의 갈증을 풀어준다. 이처럼 우물은 고해를 건너기 위해 목말라 하는 중생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을 비유한다.

8. 앞뒤의 쌍우불(前後雙井)-원(願)

앞과 뒤로 나란히 그려진 두 개의 동그라미는 한 쌍의 우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바람 곧 대원(大願)을 상징하니 모든 중

을 겨울은 유난히 도 눈이 많이 내렸다. 서울에는 32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처음 폭설에는 골목길을 다니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얼마전 폭설이후에는 거리를 다니기가 수월했다. 해서는 보리심을 근원으로 하고 풀린 날씨 탓도 있었지만, 지난 대비심을 근본으로 삼아 방편을 폭설에 힘들었던 경험 탓인지 모

르고 있다. 이것은 소위 삼구(三句)의 법문이라 하는 것인데, 밀교수행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에는 거리를 다니기가 수월했다. 해서는 보리심을 근원으로 하고 풀린 날씨 탓도 있었지만, 지난 대비심을 근본으로 삼아 방편을 폭설에 힘들었던 경험 탓인지 모

보리심은 여실히 자식이라 하여 이미 깨달아 있는 마음을 말한다. 자나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이러한 보리심의 종자가 자비심 우리에게 법문을 준다. 때론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로 때론 분노의 것이다. 방편이란 자리이타의 구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난 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바로 폭설에 우린 혹독한 경험을 했다.

타인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을 배려하는 비심(悲心)이 상실된 결과였다. 이렇게 법신불은 당체설법을 통해 우린 혹독한 경험을 했다. 자신에 이익이 있어야 타인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생심이다. 타인에게 이익으로 다가온다. 대일경 주심품에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를 근본으로 한다고 이



정보다이제스트

새 단백질구조 세계최초 발견

광우병과 치매 등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구조가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포항공대 기능성분자계연구단 김광수(52·화학과) 교수팀은 1일 "기존 단백질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된 나선구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연계의 모든 단백질구조는 오른쪽 방향의 나선구조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김교수팀은 이번에 단백질 내에 왼쪽 방향의 새로운 나선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경향>

암세포 확산 방지법 발견

암세포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새로운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등 여러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의학잡지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1일자 최신호에서 과학자들이 항체를 사용해 암성종양과 립프조직에 새로운 혈관을 형성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다. <뉴욕 dpa/연합>

남녀 고교생 11% 성경험

남녀 고교생의 11%가 성경험을 갖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 가운데 '괴임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새학기용 학교 성교육 지도자집 및 자료개발을 위해 최근 호서대 김해원 교수팀에 연구의뢰한 '국내 고교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 조사결과 6일 밝혀졌다.

서율과 광주시, 중소도시의 남녀공학 인문·업계 고교 1~3학년 남학생 1천5명, 여자 1천43명 등 총 2천49명(평균연령 16.8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성교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 응답자(965명)의 13.5%(130명), 여학생 응답자(987명)의 8.1% 등 평균 10.7%가 '성교경험 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국 음란사이트 이용률 아시아 1위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사이트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1월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한국 네이티즌의 56%가 성인몰 사이트를 방문했고, 홍콩 40%, 싱가포르 36%, 대만 35%인 것으로 넷밸류(Net Value)사이트가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통신사들이 제한된 중국은 일부 은행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 26%의 낮은 접속률을 기록했다. 설리 입 넷밸류 공보담당관은 "미디어 관련법이 활성화 자유로운 독일보다 홍콩에서 성인사이트를 찾는 비율이 활성 높아 충격적"이라며 "홍콩의 음란사이트를 방문한 네이티즌의 30%는 여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음란사이트를 찾는 횟수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홍콩의 경우 월 8000달러 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1%만이 음란사이트와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13%, 경찰에 SOS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보고 안에서 해결하려던 경향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사회적인 틀에서 해결하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난 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가정 폭력 발생시 여성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법 제정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또 신고받은 경찰이 가장 안에서 해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는 크게 줄고 남편과 격리시키거나 고소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총지총보



지·상·식·법

‘법을 가르쳐 주는 공덕’

고통받는 중생을 불법에 이끌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법시이며 작복의 유품입니다.



이 설법은 지난 2월 4일 월초불공 회향일에 총지사에서 행하신 효강종사의 설법을 실었습니다.

되도록 설법의 내용을 그대로 심도로 노력하였습니다.

효강종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불교총전 739페이지 「법을 가르쳐 주는 공덕」경을 읽으면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항하의 모래알만큼 많은 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강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 강가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인데 더구나 그 강에 있는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너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니 자세히 들어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와 같은 강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중에서 한 구절 만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공덕은 저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훨

다. 법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중생에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실천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불법에 이끌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법시이며 작복의 유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사법(四攝法)이 있습니다. 첫째 보사(布施) -

중생을 포용하고 교화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위해 베푸는 종교, 아픈 사람,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다가서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며

이것이 종교가 사회를 위해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떠나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많은 중생을 부처님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 뛰어날 것이다.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법문 중에서 한마디라도 말하고 들려준다면, 온 세상의 천신과 인간들이 그곳을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경할 것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모두 기억하여 읽고 수행하고 남들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아이 더 말할 것 있겠느냐. 그는 가장 높고 으뜸이고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법문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고,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금강경)

오늘 월초불공 회향일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삶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기원하고, 복을 짓는 것, 즉 기복과 작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 복을 기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정되고, 그 일에 한정되고, 그때에 한정되고, 작복, 복을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일에 영향을 주고, 다른 때에 미치게 되어 영원히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영원하고, 자유자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식시(食施), 재시(財施), 법시(法施) 중에 법시가 가장 공적이 크다는 경의 말씀이 있었습니

상대편의 근기에 맞는 재물이나 법을 통해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 둘째 아어사(愛語攝) -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불법에 인도하는 것. 셋째 이행사(利行攝) - 동작, 언어, 마음의 선행으로 불법에 인도하는 것, 넷째 동사사(同事攝) - 중생의 근성에 따라 변신하여 같이하여 불법에 인도하는 것 이 네가지가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생각합니다. 복지사회의 구현은 세계적인 주제이며 각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행복 추구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듯이 사회의 한 축으로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행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을 포용하고 교화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위해 베푸는 종교, 아픈 사람,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다가서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며 이것이 종교가 사회를 위해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비해 사회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종교비교, 사회적 영향력에서 불교의 위치, 복지시설의 수탁에서 타종교와 비교해 보면 불교는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 불교가 대

종조님 생전 말씀하시길 중생교화하는 방편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하던 교회방식 그대로 현재에 하면

안된다 하셔며 일찍이 우리 종단을 창종하면서

창종 개종의 정신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종단의 의무는 지금도 많은 교회의 정보, 부처님의 진리, 문학, 사회,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정보를

중생들과 함께하고 공유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법계가 인정하고 앞으로

유구하고 뻗어나갈 종단입니다. 종조님도

승동수도리 하셨습니다. 승직에 있는 사람만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갖고 같이 닦아야 할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 보다 복짓는 일에 모두 함께 하여야

합니다. 종조님 말씀에 “육행은 곧 협체의 행

복이고 성불의 기반이 된다” 하셨습니다. 모두

실천하고 회향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합시다.

총지총 2월 약사

총지총 2월 약사는 금번에 통리원에서 준비하여 발간한 총지총 교사 자료집에 근거하여 72년부터 89년까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9년 이후 자료집은 정리 되는대로 실겠습니다. 〈편집자 주〉

80년 2월 밀인사에서 근무중인 박병무 법사를 지인사 주교로 발령함	84년 17일 일광서원당에서 근무중인 대인사 서정희는 의원현 직에서 사퇴하고 명예전수로 서임하고, 일광서원당 후임 주교에 흥국사 주교 대법사 이정식을 전보발령하고 역시 같은 사원에서 근무중인 인사보 권선이를 일광서원당 근무로 명함. 실지사에서 수행중인 이종숙 보살을 인사로 임용하여 흥국사 주교로 임함.
18일 총지총 근무중인 정우선 인사를 법등 서원당 주교로 명함	85년 1월 중앙강원에서 소정의 수습을 마친 김종학을 법사에 임명하고 진주 선지서원당 주교로 발령함
22일 정각사 처무 조규상을 법사에 임용 정경서원당 주교로, 법등서원당 주교 김정자 법사를 건화사 주교로, 건화사 주교 이무형 대법사를 정각사 근무로, 건화사 근무 박해선 대인사를 정각사 근무로 각각 동일자 이동 발령함	22일 환당 이원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효강 안종호 밀교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청담 석희돈 밀교연구소 상임연구위원에 명함
26일 이영숙 인사의 일신상 사정으로 사직서 제출, 수리 81년 20일 자석사 주교 대인사 김상숙을 신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명하고 정각사에 근무중인 인사보 송순금을 자석사 근무 명함	86년 종령 전옹 승용차 구입
82년 15일 대법사 석희돈을 시복서원당 주교 및 기획실장과 재무부장을 면하고, 시복서원당 김자복을 의원면직 발령함	87년 10월 진주시 망경북동 9-3번지 진주 학음사 대지건물 매입
백월사 주교 대전수 권수교를 시복서원당 주교로 전보발령하고 교무 유광일을 대법사로 승진 발령하여 백월사 주교로 명함	12월 본원 전산망 현대화
교무 김우를 대법사로 승진함과 동시에 본산 근무를 명함	13일 제 54회 입시원의회 및 제 42회 임시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함
자인사에서 수행중인 이영숙 보살을 인사로 인명하고 지인사 주교로 명함. 지인사 주교 대법사 박병무를 본산 교무경직을 명함	총기 16년 전당건설계획 확정 - 만보사·혜정사 신축기로 함
16일 실지사 전당용 건물 대지 매수	운천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기로 함
20일 통리원의 처무로 근무중인 최재규를 법사보에 임하고 통리원 대기 발령함.	종립 “한마음 유치원 운영규약”을 제정하기로 함
개천사에서 수행중인 박주혜보살을 인사보에 임하고 개천사 근무를 명함	사원건축 양식 변경에 대한 의견으로 당분간 종전 양식을 변경하지 않기로 함
24일 대전수 정각사 주교 석혜선이 동남아 각 불교국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함	주식비를 전국 통일하여 일률적으로 조정지급 종합기장상인 6인 선출 - 이술이, 서태현, 인종호, 석희돈, 민운기, 김현우
83년 21일 응신서원당을 동대문구 면목동 96-98번지로 이전	유치원 전단원 6인 선출 - 이술이, 서태현, 인종호, 석희돈, 민운기, 이정식, 최봉해
28일 흥국사에서 근무중인 대인사 서홍주를 본직을 면함	16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도암사를 폐쇄함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다

밀교와 총지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풀이로서 교도들에게 보다 쉽게 밀교와 총지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편집자주〉

죽신성불(卽身成佛)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부모로부터 낳은 육신 그대로 불(佛果)를 즐들 하여 불신(佛身)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밀교 특유의 용어이며 현교에 없는 밀교교리의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현교에서는 범부와 부처와의 관계가 마치 짚은 생감과 꽃감과 같은 것으로, 생감이 꽃감으로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나 밀교에서는 그렇게 달리 보지 않고 중생 떠난 부처 떠난 중생이 없으며 부처이자 중생이 한 인생의 양면인지라 자기 자신이 부처와 본래 다른이 없다는 철저한 평등관에 입각해서 지각하면 자각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또 고아였던 아이가 다행히 부모를 찾으면 친아들이 되듯이 우리들은 스스로 범부다 중생이다 생각하니 범부중생이지 내가 부처라 자각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분별심으로 범부중생이라고 공연한 생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 마음과 같은 바른 마음을 지니며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진실한 말을 쓰며, 부처

총지총에서 사용하는 참회계문은 어느경에 있습니까?

잘 물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방광불화엄경권 제사십 입부사의 해탈경에 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원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에치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恚癡
종신어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從身語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총지 생활 광고

본 광고면은 교도 여러분들을 위한 면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 축하인사 및 홍보 등 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총지생활광고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52-1080~3
FAX (02) 552-1082
www.chongji.or.kr
(개시판, 방명록 이용)

제 12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종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서울 경인교구 교도들은 혜암 종사와 함께 밀엄세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

제 12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종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충청 전라교구 교도들은 혜암 종사와 함께 밀엄세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 전라교구 신정회

제 12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종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구 경북교구 교도들은 혜암 종사와 함께 밀엄세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신정회

제 12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종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부산 경남교구 교도들은 혜암 종사와 함께 밀엄세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경남교구 신정회

축 임명
교구장 임명을 축하합니다

부산 경남교구 교구장에 정각사 주교 정정심 대전수의 임명을 축하합니다. 스승님과 함께 교구 발전과 중생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경남교구 신정회 일동
정 각 사 교 도 일동

축 합격
합격을 축하합니다

오현구(충주 혜명한의대), 김현영(동국대 한의대) 부부, 김현아(동아대 특체), 김은미, 이수현(울산대)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실보사 주교 혜암·최상관 합장

축 결혼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화음사 정사님의 장남 박영수군 결혼식
일시: 3월 17일 토요일 13시 20분
장소: 진주 제일예식장 2층

화음사 주교 합장

축 박사학위취득
불교총지종 법장원 수석연구원

대현님이 『世親 唯識思想의 源流과 成立에 관한 研究』 논문이 통과되어 2000년 동국대 철학 박사 학위 취득을 하였습니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일동
불교총지종 통리원 일동

2001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주요사업 계획

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강남구청에서 1999년 2월 건립·준공하고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시설로서 노인 주간보호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2001년도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규사업

▶ 경로식당 무료급식.

무료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복지센터내 경로식당은 개관이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일반노인은 1,000원씩 실비를 받고 운영하였으나, 2001년 3월부터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30분의 노인들에게 주 2회 밀반찬을 제공하게 되었다.

▶ 계속사업

▶ 노인주간보호센터

▶ 밀반찬제공 서비스

밀반찬 제공 서비스는 생활이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밀반찬을 직접 조리하기 곤란한 노인들에게 밀반찬을 제공함으로 인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본 복지센터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분의 노인들에게 주 1회 밀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있으나 2001년부터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30분의 노인들에게 주 2회 밀반찬을 제공하게 되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알선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현재 매월 30여분의 구직자를 취업시키고 있으며,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 재가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은 식사배달사업, 밀반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한방진료, 수족질서비스, 글심교실 운영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 노인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동해중학교 소식

중학생들을 훌륭히 마치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은 졸업생에게

인생의 긴 행로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



우수 졸업생 학교장상은 3학년5반 하종균, 3학년7반 김윤민, 3학년1반 이슬기이 수여하였다. 그 외 대내외상 37명이 수여하였다.

▶ 학교법인 대동학원이사회

지난 2월 14일 동해중학교 이사회가 이사장 선생, 이사 경관, 원봉, 혜산, 학교장, 감사 법성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200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주경예산 심의와 2001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 기간제교사 임용에 관한 건이었다.

▶ 총축교사 준공

총지종의 지원금 2억원으로 착공한 동해중학교 2층 특별실 총축공사가 1월 19일 준공되었다. 총 5개 교실 규모인데, 2개 교실은 교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춘계방학을 이용하여 교무실 이전 작업을 하였다. 2개 교실은 교원휴게실과 방송실, 학부모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고 1개 교실은 다용도교실로 사용한다. 기존의 교무실은 가사실 겸 미술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문 옆

의 수워실 겸 차고를 개조하여 체육부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교무실에는 26명이 사용하고 정보부 6명은 정보실로, 과학과 4명은 과학실, 가정 및 기술과 3명은 가사실, 체육과 4명은 체육부실로 각각 분산 수용하기로 하였다.

▶ 신학년도 종교교육 계획

신학년도부터 제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교장 재량시간에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는 시작 단계이고, 학생선발권이 없어 입의로 배정된 학생이기 때문에 종교시간을 많이 배정하기 어렵다. 우선 교과시간에 1학년 각 반 연간4시간씩 32시간을 실시하는데, 불교 반 교사인 장재계선생님과 김춘삼선생님이 맡게되고, 교재는 각종 교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후년에는 3학년까지 모두 종교교육을 하게된다. 앞으로 종교교육을 점차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규시간에는 어렵더라도 특별반 시간에 심도있게 지도해줄 교법사가 필요하다.

불교문화 이야기

등신불

이현주

김동리의 단편 소설인 '등신불'은 1961년 11월에 발표된 그의 불교사상에 대한 심화를 보여주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 중의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가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제 말기 학병으로 끌려간 '나'는 중국의 북경을 거쳐 남경에 주둔해 있다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탈출, 불교학자인 진기수에게 식지를 잘라 혈서를 써 구원을 청한다.

결국 그의 도움으로 정원사(淨願寺)라는 절에 머물게 된 '나'는 그곳에서 등신대(等身大)의 결가부좌상(結跏趺坐像)인 금불상을 보고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 등신불에 대한 내력이 소개되는데 이 등신불은 옛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마침내 성불한 만적이란 스님이 타다 군

어진 몸에 그대로 금불을 입힌

특유한 내력의 불상에 얹힌 이야 기가 시작된다.

만적(속명은 기)은 어머니의 학대로 집을 나간 이복형 사신을 찾아 나와 중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문동이가 되어 있는 사신을 만나게 된 뒤 충격을 받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복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근원적인 죄라는 죄의식을 가져 소신공양을 하게 된다.

만적이 몸을 태우던 날 여려 가지 신이(神異)가 일어나 새전이 쏟아지게 되며, 이 새전으로 타다 남은 그의 몸에 금불을 입

해서 등신불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등신불은 거룩하고 원만한 여느 불상과는 달리 고개와 등이 굽었을 뿐만 아니라 우는 듯, 웃는 듯, 징그리는 듯,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가부좌상으로서 보는 사람의 기습을 움켜잡는 듯한 감동과 함께 전율과 경악을 느끼게 한다.

한 인간의 승화된 고뇌와 비원을 형상화하여 숭엄한 속죄에 내재한 인간적인 고통의 깊이를 종교적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은 이 작품만이 지난 특징이라 하겠다.

강연주의 부처님 이야기

절름발이 아저씨의 돌팔매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 나라 왕이 아끼는 대신 가운데 수다쟁이가 있었어요. 그 대신은 한 번 입을 벌리면 다물 줄을 몰랐어요. 대신은 왕한테도 잔소리를 늘어 놓았어요. 말을 많이 하다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왕은 대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왕은 그 대신의 부릇을 고쳐 놓고 싶었어요. 한편, 그 나라에 돌팔매를 잘하는 절름발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의 좀 한가하면 이렇게 졸랐습니다.

"이자씨, 저 나무 위에 달린 잎으로 코끼리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기도 하고 용돈을 조개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절름발이 아저씨는 못이기는 척 돌팔매를 던져 나뭇잎을 맞추지요. 몇 번 돌팔매를 던지면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던지는 돌팔매질을 보는 아이들은 넋을 놓고 그것을 보곤했지요. 아이들이 너도나도 무엇을 만들어 달라

고 하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남아 나질 않았어요. 더러는 떨어지고 더러는 꽃 모양으로 말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 있었지요. 그 날도 아저씨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큰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느라 쉴새 없이 돌팔매를 던졌어요. 마침 그 곁을 왕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왕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다 달아났는데 절름발이 아저씨만은 돌팔매질을 하느라 왕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왕이 기막히 보니 그 사람의 돌팔매질이 신기하거든요.

'옳다. 저 사람한테 대신의 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해아지.'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절름발이를 불렀어요. 절름발이는 나무를 망쳐놔서 왕이 부르는 줄 알고 짤짤매며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왕의 부탁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였어요.

"대왕님, 저한테 산양의 뜻을 좀 구해 주세요."

절름발이는 이렇게 말하고 대신이 왕을 만나러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왕을 만나러 온 대신은 왕 앞에 앉자마자 다시 잔소리를 늘어

교화 스승님을 모십니다.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통한 불법홍포와 중생교화에 뜻이 있는 분을 약간명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30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불문
2. 본 종단 교도로서 7년이상 수행자
3. 진리를 깨쳐서 실천하므로써 선행의 묘득을 체험하게 된 자
4. 본 종단의 규율을 이행한 자

뜻이 있는 분은 각 사원 스승과 불교총지종 통리원 총무부로 문의바랍니다.

총지문화계 소식



일엽스님이 보내는 선문

개화기 최초의 여류 문인' 이자 '한국 불교가 낳은 최고의 예술'으로 일컬어지는 김일엽 스님(1895~1971). 스님의 입적 30주기를 맞아 일엽 스님 출가 이후 쓴 글들이 '일엽선문' (一葉禪文·문화 사랑)이란 이름으로 둑여 출간됐다.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 영겁에 얻기 어려운 이 봄이라/태어난 험한 길 거쳐 이 산에 이르니/오늘에야 문득 옛 근심 잊노라'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전문)

일엽 스님이 생전에 주석했던 예산 수녀사 환희대를 중심으로 한 '김일엽 스님 문도회'에서 폐낸 문집에는 스님의 수행과 구도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시문, 유고, 법문, 법어록 등 스님의 작품과 함께 민공·동산·청담·운허 등 한국 현대불교사를 수놓은 고승들로부터 받은 서한,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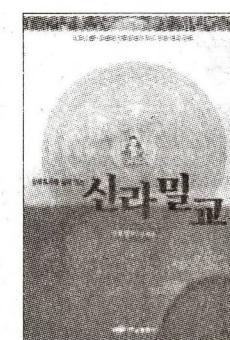
적 후의 추모록 등을 덧붙여 스님의 수행생활 아니라 당대 선승들과의 정신적 교유관계까지 알 수 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배우고 도교 우학까지 다녀온 일엽 스님은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을 주장하며 일제 하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32세 되던 1928년 돌연 입산, 경허·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승 법맥에 몸을 담아 다시 한번 세인을 놀라게 했다. 60년 대 폐낸 '청춘을 불사르고'는 그의 굽진 삶의 역정을 담은 수상록으로서 점가를 풍미하기도 했다.

일엽 스님의 손상좌로 문집 편찬을 주도한 월송스님은 "세속적인 명성에 가려었던 선승의 모습이나 구도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이 책을 평가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밀교

저자 : 비로영우 출판사 : 하남출판사
이책은 비밀스럽게 수행하고 전수되어온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침인 밀교를



삼국유사와 고려 대장경 밀교부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 책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밀교승의 이야기와 티벳 밀교의 성자 나로빠의

수행기, 금강유가정경의 수행자 침서, 금강계대만다라속 존상들의 수인, 다나리 삼매법등이 상세이 적혀있으며, 수행중에 나타나는 마장의 원인도 경전을 통해 밝혀놓았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책은 제1장 신라밀교의 자취 제2장 수행의 입문과정, 제3장 대비로 자나성불신변가지경의 입진언문 주심 품과 제4장 지법수행에 해당하는 금강 정일체여래진실설대승현증대교왕경의 일부, 제5당 연화부십염승의궤, 제6장 지법수행의 정수인 금강계대만다라수행의 자세한 인법과 관상법, 다나리 수집법,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비주얼 밀교

글 / 그림 : 정수일

교도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야~호!

아이고 다리아 오래만에 등산을 했더니 무척 힘이드네.

아니? 떡입술 각자님, 뭐하세요?

하하하...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표시를 하는겁니다.
산천초목도 다 중생이거늘, 산생명을 함부로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밀교는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삼밀관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명왕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왕(明王)은 불·법·승을 비방하고 해치는 무리들로부터 이를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신(神)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고 불법을 배우고 지켜주는 수호신이랍니다.

아이고 또 어려운 말이다.

명왕이 뭔데요?

아이구 훌라.

어? 이런 곳에 웬 석불상이 있지?

지루한데 잘됐다. 솔방울이나 하자.

해해.. 명왕이 불·법·승을 보호한다고? 솔방울로 석불상을 맞춰도 아무일도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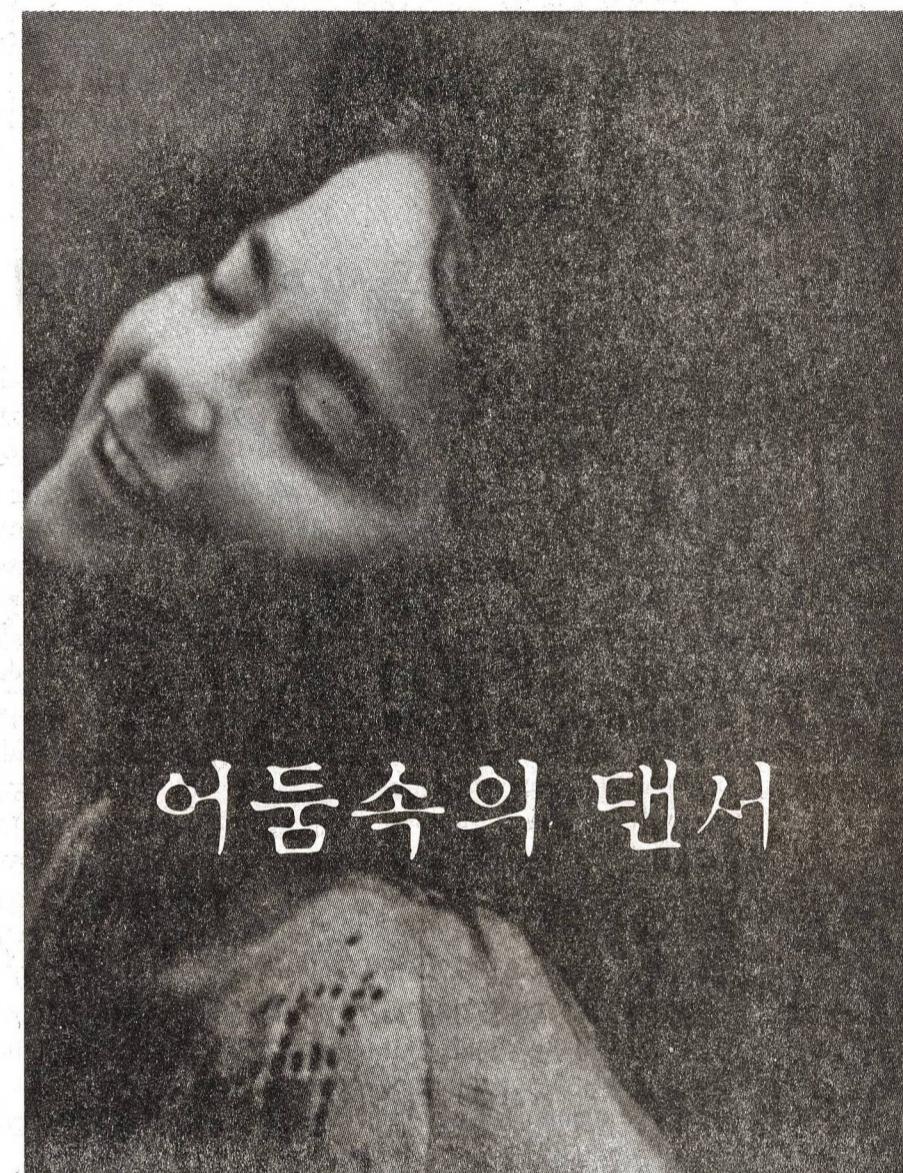
아이쿠~!

웬 솔방울이 한곳에 이렇게 많아!

하하하...!!!

그래서 삼보를 함부로 해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석불상을 솔방울로 맞추더니 명왕의 노여움을 살군요.



어둠 속의 댄서

주연인 보크 역시 섹시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전세계에 매니어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팝 가수. 열 한 살에 첫 음반을 낸 후 14집까지 선보였고 아이슬란드 대통령으로부터 귀족 칭호인 '레이디'를 선사 받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댄서'에서 신들린 연기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천재성이 농후한 감독과 주연 배우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야기를 상상 속에서 펼치는 화려한 춤과 노래, 인상적인 영상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한 편의 음악 영화를 만들어 냈다.

〈어둠 속의 댄서〉는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제코 여성 셀마는 유전적인 병으로 시력을 잃어간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아들 또한 시력을 잃을 것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공장일에 몰두한다.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기쁨은 아미추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할뿐이다. 우연히 그녀의 돈에 대해 알게 된 옆집 경찰관 빌은 그녀의 돈을 훔친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빌을 찾아간 셀마는 그를 죽이게 되고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결국 셀마는 유죄를 선고받고, 그 돈이 자신의 변호 비용에 쓰이는 것을 거부한 채 죽음을 선택한다.

여전히 전제적인 톤은 거칠고, 어둡고, 축축한, 그리고 슬픈 리스 폰 트리에에 그 자신의 전통에 있어서 비껴 있지 않다. 그 사이 사이에 뮤지컬 '장면'이 삽입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즉 조금 다른 이유로 놀라운 것은 〈어둠 속의 댄서〉가 뮤지컬의 컨벤션을 형식들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도, 뮤지컬이 지난 전통적인 요건인 판타지로서의 기능에 는 한치의 벗어남 없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이다. 오히려 리스 폰 트리에에는 뮤지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형식적 실험적이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더욱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이 판타지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 그것을 '치유성'의 의미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영화에서 춤과 노래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지만 시력을 잃어가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셀마를 위해 리스 폰 트리에가 마련한 치유적인 판타지의 시공간이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 춤과 노래가 들어가는 시기는 그녀의 절망적인 현실 상황들 사이에 삽입되며, 그것을 통해 셀마는 희망적인 다른 상황을 잠시나마 꿈꾼다.

그러나 〈어둠 속의 댄서〉에서 희망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전제적 문제, 즉 피할 수 없는 '절망'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 리스 폰 트리에의 절망으로서의 구원이라는 시유 안에 있으며 〈브레이킹 더 웨이브〉와 〈백치들〉의 상호적인 이해 관계 속에 놓여있다. 리스 폰 트리에의 진흙 속 절망의 노래가 만들어낸 뮤지컬이 〈어둠 속의 댄서〉인 것이다. 모순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도 리스 폰 트리에가 뮤지컬을 만나게 된 것은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총지동의보감

갑상선이란?

김 옥 희 | 김내과 의원 원장

외래 진료를 하다보면 흔히 갑상선에 걸렸다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 그러나 갑상선이란 특정한 병명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몸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목 한가운데 튀어나온 물렁뼈 아래로 나비가 날개를 편 것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갑상선은 눈에 띄지 않으나 갑상선에 별이 생긴 경우에는 흔히 갑상선이 커져서 만져지거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갑상선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목이 길고 마른 젊은 여성에서는 갑상선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목이 짚고 짚거나 뚱뚱한 사람의 경우에는 갑상선이 상당히 커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실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빨리 타서 없어지며 따라서

과다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며 잘 먹는데 살이 빠지게 된다.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하여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 먹고나면 먹은 것이 바로 내려가 쉬 배가 고파지고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흔히 신경이 예민해지며 손발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속도가 감소되고 열발생이 줄어들어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며 얼굴과 손발이 붓고 잘 먹지 않는데도 붓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된다. 자율신경이 둔해져 맥박이 느려지며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정신활동도 느려져 말이 느려지며 기억력이 감퇴된다.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에도 여러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곳 이므로 갑상선에 생긴 질병에 의하여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보다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향진증이라하며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하는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는 요오드가 필수적이다. 요오드는 중금속의 하나로서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어 바다에서 나는 음식에 주로 들어 있다. 요오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마를 비롯 김, 미역등의 해초이며 그 외 조개 새우 등 해산물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요오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므로 요오드 부족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는 드물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는 머리속에 있는 뇌하수체에 의하여 조절되며 갑상선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질병에 의해 갑상선 제거술을 받은 경우는 평생동안의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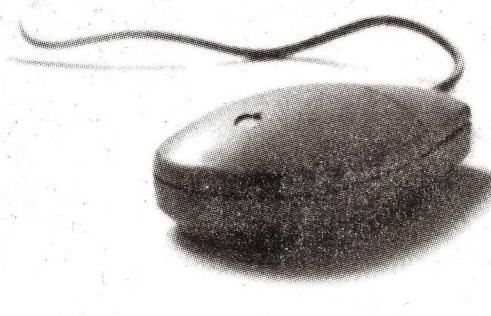


김내과 의원 (053)792-5115

여래기획

광고기획/카다록/사보편집/출판대행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빌딩 401호
전화 : 739-2180, 722-2850 팩스 : 730-9067



알음알음 알 수 있습니다.



연꽃마당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에서 꽂피우는 佛子들의 이야기

강남구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개최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강남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는 생각에
이번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마련

강남불교사원연합회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 강
남구청에서 강남구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
최하였다.

총지사 주교 법등, 봉은사 주지 원혜, 강남포교원
주지 성렬, 능인선원 주지 지광등 강남구 관내 불교
사원 및 단체 대표와 권문용 강남구청장, 이재창 구
의회의장 및 수서경찰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강남구청의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가 친불가, 반야심경, 봉행사, 담사, 발원
문, 사홍서원순으로 1부행사와 다파 및 간단회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남불교사원연합회 준비위원장 원혜스님은
봉행사에서 우리 강남불교사원연합회는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강남을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는
생각에 이번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마련
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의 불씨가 온 들을 사르는 것처럼
오늘 이봉행하는 강남구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
법회가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불씨가
되고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강남불교사원연합회 준비위원은 앞으로 부처님오신
날 봉축법회, 연등축제, 친불가 경연대회, 다도등 연
합문화행사를 가져 불교를 알리고 불우청소년 결연
관내 복지시설 후원 직능단체 후원등을 통한 지역
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더나아가 불교계와 행정기관
과의 민원성 문제가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
자법조인의 지원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여 불
교의 위상확립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7일 총지사
에서 모임을 가져 몇차례의 밤기획의 토론회를 열어 오는
3월중 칭립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구와 불교계의 대화의 장을
마련 구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조를 공고히 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31회 동해중학교 졸업식

266명 동해인 졸업.... 그리고 새로운 진학.

또 하나의 시작인 작은 마침, 지난 2월14일 총
지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제31회 졸업식에 266명
의 동해인이 졸업을 하였다.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졸업장 및 상장수여, 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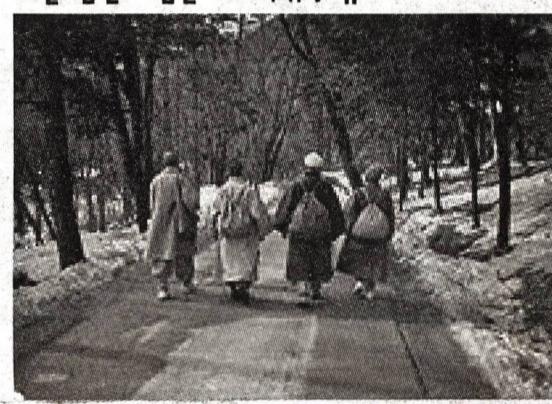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성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한다고 치사

회고사, 이사장 치사, 송사, 답사 및 폐식선언으로
진행된 졸업식에서 강경중 학교장은 회고사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는 본교 생활지표는 앞으로 286명의 졸
업생들이 평생 마음에 새겨 하루 하루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오늘 졸
업은 미침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졸업임을
명심하고 상급학교와 사회에서 성실하고 충실히 동
해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생 이사장 치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보화 시대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젊은
인재들을 요구하는 시대이며, 여러분은 21세기 주역
이며 이 나라의 보배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부
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모교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이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성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하고
치사를 하였다.

한편 이날 교과별 우수상 403명, 3년계 근상 139명,
3년 정근상 83명, 1년 계 근상 12명, 1년 정근상 13
명, 일기상 8명, 독서상 8명, 모범상 11명, 오부상 16
명 등 총 693명이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겨울 참선'스님들 다시 山門 밖으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1,700여개에 달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씩 불들고 늘어지는데
이 중에서 '무(無)'와 '이 뛰고'라는
화두에 가장 많이 매달리는 것

“심리만상에서 깨달음을”, 매일 18시간씩 참선 석달.
“해제는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를 해서 선방을 떠
나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다니더라도
둘 의심덩어리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바로 결제
입니다. 해제 결제가 날짜나 모양에 있는 것만이 아
니라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해인총립 방장 법전(法傳·76) 스님의 3개월간의 안
거를 해재하면서 하신 법문이다.

지난 7일 우리나라의 82개 선원에서 동안거에 참

총지총보

여한 선승은 1666명이 동안거의 용맹정진을 마친
선승들은 잠시 후 소지품을 모두 담은 걸방 하나씩
을 메고는 3개월 뒤 다시 하안거에 들어갈 때까지
발길 닫는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행을 하게 된다.

불교 발상지 인도에서 우기에 수행자들이 모여서
단체생활을 하던 데서 유래한 안거는 중국에 들어
와 여름과 겨울에 집단 수행하는 것으로 정착됐다.

안거(安居)란 출가 수행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
여 수행에 전념하는 일.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1년에 두차례 각각 동안거와 하안거를 치
르고 있다. 안거에 들어가면 오전 3시에 일어나 공
양(식사)과 포행(몸을 풀기 위해 이리저리 걸어다
나는 것) 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이상을 참선으로
보낸다. 참선은 수행자의 수행정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일부 스님은 1주일 동안 매일 18
시간 이상 수행하는 용맹정진을 하거나 며칠씩 철
야로 정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스님들은 큰 깨
달음을 얻기 위해 1,700여개에 달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씩 불들고 늘어지는데 이 중에서 ‘무(無)’와
‘이 뛰고’라는 화두에 가장 많이 매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승(책임자), 청중(책임자 보좌), 원주(물자 관
리), 지객(손님 접대), 서기(문서 관리), 유통(목욕
담당), 정통(화장실 청소), 닦각(다과 준비) 등 역할
을 나누어 맡는다. 선방의 중앙 벽에는 각자의 소임
을 글씨로 기록한 용상방을 붙여 놓는다.

지난 93년 동안거 1081명, 1996년 동안거 1244
명, 1998년 동안거 1536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삶과 수행 토론하는 화엄광장 개막



깨달음이 지금 ·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순간 순간의 구체적인 삶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으로 취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지난 9일 저녁 7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회
화엄광장이 불교 민간단체인 인드리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도법 스님) 스님과 재가자들이 삶과 수행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제1회 ‘화엄광장’ 개
최하였다. 화엄광장은 불교와 현대사회의 문제를 주
제로 한 차별없는 토론회로, 인드리망생명공동체
가 기획, 주관한 아단법석이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
에서는 도법 스님이 불제를 하고 전대 철학과 성태
용 교수, 전국귀농운동 대표 이병철씨 등이 토론자
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인드리망 생명공동체는 앞으로 두 달마다 화엄광
장을 열어 삶과 수행, 지역공동체, 대인문화, 환경과
생명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 행사는 기획단장인 정해숙 전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위원장은 “이 행사는 분열과 대립, 경쟁과 승
복을 마련하자 하셨다.

리로 이어져 온 과거를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차별없는 대화의 자리”라면서 “앞으로
두 달에 한번씩 16차례에 걸쳐 화엄광장을 열계획”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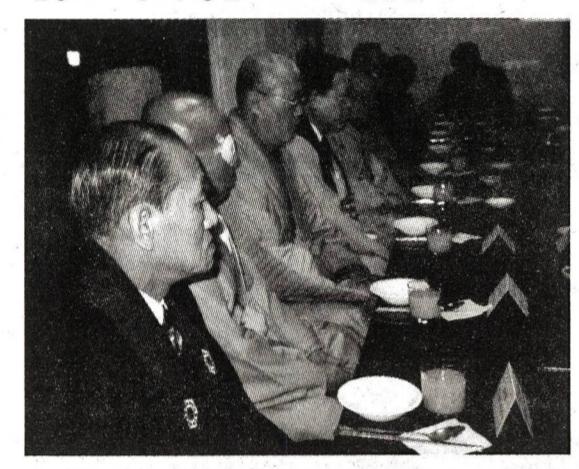
이날 토론장에는 100명 가까운 각계각층의 대중
들(스님, 재가활동가들은 물론 학생, 귀농자, 수녀
님, 외국인신부님 등등)이 각자에서 소식을 듣고 물
려와 깨달음의 문제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발제를 한 도법스님은 불교집안에 깨달음의 문제
가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폐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 지금 ·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순간 순
간의 구체적인 삶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으로 취급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발제를 하여
많은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또한 이병철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삶
의 현장에서 구체화, 대중화시키는 일이다. 과연 우
리는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 충실한가, 내가 지금 병
들에 있는 것을 아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
은 자리에 모인 대중의 마음을 숙연히 해 주었다.
또 성태용 교수는 ‘깨달음에 주눅든 삶’이라는 이야
기를 꺼냈다. 우리는 깨달음을 몰라서 하는 고지
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한 존재니까,
하는 폐배주의를 넣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깨달은 이의 삶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주장이라 하였다.

이날 풍성한 화엄의 법설에도 불구하고 논평자
가 묻고 발제자가 답하는 식으로 논의의 축이 발제
자에 지나치게 집중되었으며 또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논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의견주장만 신선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화엄광장
을 마치고 돌아서는 마음속에 묵직한 내면을 발견
하곤 했다.

연등회 초청 각 종단 지도자 오찬간담회



지난 2월22일 오전 12시에 국회 연등회(민주당 김
기재 국회의원 회장) 초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총무원장과 오찬 간담회에 혜암통리원장이 참
석하였다.

국회 연등회는 올해 사업으로 광역시 단위 불교
지도자 간담회 개최, 연등회 청와대불자회 합동 수
련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합동법회 및 적극 참여,
연등회 청립 5주년 기념 법회, 불교관계 법령, 제·
개정 및 정책입안 활동등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신하 종단의 적극적 협조를 요
청하였다.

혜암통리원장은 불교계행사에 연등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불교계의 위상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불교종단
협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불교발전의 초
석을 마련하자 하셨다.

쓴 소리 단소리

뒷방공사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때에
상호연관작용으로 조직의
자양분이 되며 자양분은 활기찬
생명력이 있는 조직, 발전의 비전이
있는 조직의 결과

절집에 가면 뒷방공사라는 이야기
를 많이 쓰곤한다. 다 알겠지만 대중
들의 의견을 모아 사중의 일을 처리
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뒷방에서 소
곤소곤 몇몇 사람들이 사중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뜻에서 써 좋은 말은 아
니다. 뒷방공사와 비슷한 말은 흔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
다.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밀
실아합이라는 말이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선거때가 되면 당적을 바꾸거나
당의 정경정책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권욕과 권력욕에
유권자의 의사나 민의의 수렴없이
당통합(정확한 표현은 야합)을 한다.
이러한 모습의 가장 큰 패단의 하나
는 민주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유타파에
조직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에 위배
된다. 것이다. 뒷방공사나 밀실아합
도 문제지만 반대극복적으로 이견을
좁혀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
겨보면(물론 일도 하지 않은 무시안
일태평주의자지만...) 정작 자신은 하
지도 못하고... 뒷방불평불만만 하는
것 또한 문제는 아닐수 없다.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조직은 조직
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팀워크를 중요하다. 팀워크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
휘될 때에 상호연관작용으로 조직의
자양분이 되며 자양분은 활기찬 생
명력이 있는 조직, 발전의 비전이
있는 조직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양분을 받은 조직은 그 자양분을
조직구성원에게 회향하고 구성원이
조직과 일체감을 가질수 있도록
들어줘야 한다.

종단을 보면 다시 한번 팀워크에 대
한 생각을 해본다. 앞에서 이끄는 사
람이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모두
흔연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관계의 상
을 생각해본다. 평범한 대화속에 가
시를 숨기고 있는 모습처럼 혹시 우
리자신이 그러하지 않을까?

뒷방공사도 문제지만 뒷방불평 속
된말로 뒷방은 때리지 말길....

身衣一體

맞춤 전문 제일 복장사



대 표 이 영 집

경남 밀양시 내일동 495-3번지
(북성4거리 농협 건너편)
전화: (055) 354-6546

최신식 컴퓨터로 옷 색깔 그대로 세탁합니다.
몸과 마음까지 세탁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얀 컴퓨터 세탁소

대 표 박 철 준

경남 밀양시 교동 819-3
전화: (055) 353-6783

모자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밀행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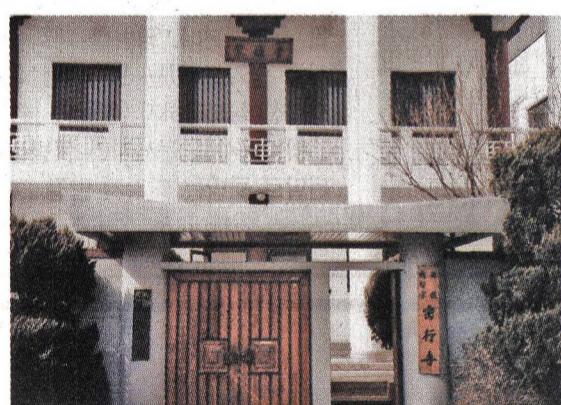
“참 진언행자” 지공정사님 · 지회심 전수님

취재 박현수 · 황의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밀양은 수많은 무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많은 고승, 학자를 탄생시킨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춘정 변계량은 밀양군 총등면 구령리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점제필 김종직은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태어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 사명당스님은 밀양 부안면에서 태어났고 또한 우리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시고 한국 밀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원정대성사도 밀양군 산외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생가가 있다. 이처럼 밀양은 한국불교에서나 우리 종단으로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은 유교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있고 또한 시(市)라고 하나 상주하는 인구는 5만 정도 어서 밀행사 교도들도 대부분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포교나 교회 혹은 설법에서 여타 다른 지역의 사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도들간의 화합이나 법회 때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은 다른 사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한반도의 중추 백두대간을 타고 내리던 산줄기의 끝자락에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우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7개의 산군 가운데 자리 잡고있는 밀양. 최초로 밀양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밀양은 삼한시대 변한 24국 중 미리이동국이다. 그 후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한 추화군이 되었다가 고려시대에는 밀성군으로 개칭 다시 조선시대에는 고종 32년에 대구부 밀양군이 되었고 1889년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밀양은 수많은 무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많은 고승, 학자를 탄생시킨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춘정 변계량은 밀양군 총등면 구령리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점제필 김종직은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태어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 사명당스님은 밀양 부안면에서 태어났고 또한 우리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시고 한국 밀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원정대성사도 밀양군 산외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생가가 있다. 이처럼 밀양은 한국불교에서나 우리 종단으로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기2년(1973) 밀양선교부가 개설되어 초대 주교로 현재 부산 법성사에 계시는 시각화(始覺花) 전수님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육지대명왕진연 음마니반메훔 그 신묘한 진언이 처음 밀양에 울려 퍼진 후 총기4년(1975) 밀양선교부는 밀행사로 개칭되었고 현재의 밀행사는 총기 11년(1982) 착공된 사원이다. 초대주교 시각화 전수님 이후 하정 정사님 그리고 대원회, 법상원, 밀공정, 지회심전수님을 거쳐 현재는 지금 정사님이 주교로서 밀행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정사님은 부산 정각사 교도로서 20년 이상을 수행하였다가 총기25년(1996) 정각사에서 교무로서 사원설립을 맡아보면서 종단에 몸을 담게되었고 총기 27년(1998) 승직에 뜻을 두고 밀행사에서 시무로서 수행을 하여 28년(1999) 시무를 마치고 총기 29년(2000) 승직으로 밀행사 주교로 초임되었다.

밀양은 옛부터 밀양 박씨의 본관으로 박씨들의 집성촌이 많으며 또한 앞에 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대두이며 영남학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니 유교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있고 또한 시(市)라고 하나 인구 17만이 넘지 못하고 밀양시내에 상주하는 인구는 5만 정도여서 밀행사 교도들도 대부분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포교나 교회 혹은 설법에서 여타 다른 지역의 사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도들간의 화합이나 법회 때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은 다른 사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신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일지성 보살님은 그 신심이 정말 돈독하여 다른 교도들의 모범이 되며 총무를 맡아 신도회의 실력을 꾸리고 나가는 실각지 보살님 또한 신도들간의 화합과 진언수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하다. 지금 정사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모자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나를 밀행사로 인연을 맺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시며 회장보살님과 총무보살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초임 주교들이 허허 겪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을 것이다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는 정사님의 입에서는 유헤대명왕진연 음마니반메훔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밀행사 : 경남 밀양시 내이동 701-11 ☎ (055)354-3387

인터뷰



약력
총기 25년 정각사 근무
총기 27년 밀행사 시무
총기 29년 밀행사 주교

▶ 승직자가 교도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거리가 나왔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길이 막히는 것은 고사하고 사고로 인명의 큰 피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를 막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승직자는 바로 그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법력이 높은 고승이라고 남의 해탈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탈이나 자유로움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수행과 정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더에서 저쪽 피안의 언더 쪽으로 가는 길 앞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신호등, 악업과 죄악과 욕심과 거짓 앞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신호등, 중생들이 바쁜길로 갈 수 있도록 바쁜 길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쁜 길로 갈려는 중생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승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요.

▶ 참으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행사가 승직자로서는 초임이신데 앞으로 포교의 방안이나 사원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제가 교도로 있을 때 가끔은 스승님의 포교방법이나 사원운영 혹은 설법하시는 모습 등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볼텐데 하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선교화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보다 못한 시각으로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물리도 너무 물랐죠. 그 후 제가 승직으로 밀행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방안을 찾고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불공을 하면서 내 자신을 쳐다보니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더군요. 그래서 계획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획이나 방안 등을 크게 중요하지 않아합니다. 물론 미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오늘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종종 막각하는 것 같더군요. 오늘을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미래는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질문에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그러니까 계획이나 방안을 보다는 오늘 상황에 대하여 충실힘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곁에 머물고자 수행정진 하시는 우리 총지종 교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교화경험도 별로 없고 수행도 깊지 못한 제가 무슨....

▶ 자성일 법회시간에 설법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죠.

교화 혹은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라는 변명을 붙여 우리 절에 와서 백일불공을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느니, 우리 절에는 신통한 불상이 있어 그 불상에 제를 올리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등 하면서 중생들을 현혹하는 현수막이나 교계신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총지종 교도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교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불교는 복을 달리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입장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처님께 아무리 불공하고 기도해도 부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가정이나 직장 혹은 가족간의 불화 경제적인 궁핍,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그 해결책도 바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수행과 정진을 통해 가르켜 주시는 것입니다. 밀교에서는 이를 법신설법(法身說法)이라 하며 이 법신설법을 알아듣는 것을 증득(證得)한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총지종 교도들은 많은 수행과 정진으로 더 많은 법신설법을 증득하여 꼭 성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 긴 시간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양 밀행사에 항상 대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가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